“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낙태 옹호론자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되면 50개 주서 낙태 허용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후보로 지지하면서, 낙태 찬성자인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 전지역에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라이프뉴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낙태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됐지만, 카말라 해리스는 더 심할 수도 있다며 해리스는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허용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운동 단체인 SBA 프로라이프 아메리카의 마저리 대넨펠서 회장은 “해리스는 모든 주에 제한 없이 모든 임신기간 동안의 낙태, 심지어 7, 8, 9개월의 고통스러운 말기 낙태를 강요하려고 한다”며 “해리스는 낙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출생 전 아동의 발달 단계나 여성의 실제 필요를 포함한 다른 것은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넨펠서 회장은 “그녀는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임신 치료 센터를 폐쇄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낙태 사업장에서 캠페인을 벌인 최초의 현직 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치인 JD 밴스, 공화당은 모든 주에 낙태를 강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거부하고, 각 주가 낙태에 제한을 두는 권리를 지지한다”며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어머니들에게 진정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생명운동 단체인 내셔널 라이트 투 라이프의 회장 캐롤 토바이어스는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허용하는 확대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 행정부의 극단적인 의제를 밀어붙일 것”이라며 “해리스는 근본적으로 낙태를 찬성하며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카말라 해리스는 민주당의 극단적인 낙태 찬성 입장을 대변하는 낙태 옹호론자다. 그녀는 정치 경력을 쌓는 동안 미국가족계획행동기금, 에밀리 리스트, 모두를 위한 생식 자유(구 NARAL Pro-Choice America) 등 무제한 낙태를 지지하는 단체로부터 지지와 캠페인 기부금을 받아왔다.

프리스트스 포 라이프의 전국 이사인 프랭크 파보네는 “지금 모든 미국인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책과 관련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똑같은 파괴적인 정당의 똑같은 파괴적인 정책: 낙태 찬성, 국경 개방, 인플레이션, 나쁜 무역 거래가 대체 후보가 지명된다고 해서 미국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다서 1:18,20-21)

하나님, 낙태를 지지하고 그것을 미국 전역에 확장하는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과 대통령 후보로 인해 위태로운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생명 존중 단체들에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미국 대선을 올려드리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낙태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심령을 꾸짖어 주시고 서로를 비방하며 육을 추구하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파하소서. 주여! 이 땅을 십자가 복음으로 흔들어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주를 경외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중국 '국가 인터넷신분증' 도입 추진…온라인 통제 우려

중국이 인터넷에서 별도로 사용되는 '국가 인터넷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뉴욕타임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공안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주 '국가 인터넷 신분 인증 공공서비스 관리방법'에 대해 지난달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한다는 공고문을 냈다. 총 16개 조항으로 된 이 방안은 문자와 숫자로 조합한 인터넷 주민번호 격인 '인터넷 번호'와 '인터넷 신분 인증'을 도입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 업체들이 하는 개인 신분 인증을 국가가 직접 나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로즈 루추 홍콩침례대 부교수는 "중국 당국이 당신의 모든 온라인 활동과 디지털 자취를 감시하게 될 것"이라면서 "사람들 행동에 확실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베드로전서 5:8-9)

하나님, 언론, 무역, 인터넷 통제 등 공산당 이념에 반하는 모든 것을 제재하려는 중국의 행보 가운데 인터넷 신분증 도입 추진으로 더욱 자국민을 감시 아래 두려는 이 땅을 꾸짖어 주십시오. 온라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제한받지 않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주님의 백성을 노리는 대적 마귀의 권세를 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여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길 믿음을 굳건히 세우사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 인도 목회자, 종교적 폭력 희생…소수 종교인 우려 커져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 주의 한 목사가 최근 종교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면서 인도 내 소수 종교인 처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달 31일 전했다. 지난달 21일, 바르게세 차코 목사는 담타리 마을의 한 교인 집에서 열린 집들이를 겸한 기도회에 참석하던 중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약 20명의 마을 주민들과 마주쳤다. 사건은 힌두교 사원 옆에서 일어났으며, 이 단체는 기독교인 모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폭도들은 차코 목사가 도착한 직후 강제로 집에 들어와 기도회 중단을 요구하며 기독교인들을 '불법 개종'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목사에게 건물을 떠나라고 지시했다. 차코 목사가 떠나려고 하자 괴한들은 차코 목사를 쫓아갔고, 그곳에서 그의 차량을 세운 후 강제로 끌어내리고 몽둥이로 폭행을 가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로마서 1:15-16)

하나님, 기도회에 참석하던 중 폭도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목사님의 소식에 복음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죄 된 실상을 보며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개종금지법을 이용하는 힌두주의자들의 무뎌진 양심을 책망해 주시고 법과 정치로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악한 간계를 꾸짖어 주십시오. 박해의 소식이 인도의 예수교회를 영적으로 깨우는 기폭제가 되게 하사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에 더욱 전심을 다 해 구원의 소망이 꽃피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유엔 “작년 HIV 신규감염자 130만 명…총감염자 4천만 명 육박”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유발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수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유엔의 공식 집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 기구인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HIV 감염자의 수가 3천99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900만 명은 어떠한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지난해 전체 HIV 감염자 가운데 86%가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고 77%는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72%는 바이러스가 억제된 상태였다고 소개했다. 작년 신규 감염자 수는 130만 명 정도였으며 63만 명이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망자 수는 2004년의 210만 명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2025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목표치인 25만 명 이하보다는 여전히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유엔에이즈계획은 지적했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에이즈 유행 종식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진전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북아프리카와 동유럽·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3개 지역에서는 신규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유엔에이즈계획은 경고했다. 유엔에이즈계획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HIV 감염이 유난히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 불평등이 여성과 소녀들의 위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노동자 등을 포함, 차별받고 있거나 소외된 지역사회에서의 신규감염 비율도 2010년 45%에서 작년 55%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유엔에이즈계획은 전했다.

한편 세사르 누녜스 유엔에이즈계획 뉴욕 사무소장은 6개월간 약효가 지속되는 새 HIV 치료제 개발에 진전이 있었지만 연 2회 접종에 4만 달러(약 5천500만원)가 든다면서 제조사 측에 중·저소득국가에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약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로마서 3:18,23-24)

하나님, 눈앞에 주를 두려워함 없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정욕에 종노릇 한 죄악의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에이즈 종식을 위해 세계 기구가 노력을 기울이지만, 오직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근본적 해결임을 선포하오니 복음을 가진 교회를 일으켜 주소서. 열방의 교회가 에이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셔서 저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피살…이스라엘 보복 시사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1일 피살된 가운데, 하마스 측이 피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같은 날 전했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하니예가 "이스라엘의 습격으로 살해당했다"라며 지하드(이슬람교도의 종교적 전쟁)를 통한 승리와 순교를 공언하며 보복을 시사했다. 하마스 고위 대변인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우리는 예루살렘 해방을 위한 전쟁 중이고,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됐다"라고 했다. 하니예는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 기습 이후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에 있어 핵심 인사로 꼽혔으며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했다가 거주지에서 공격받아 사망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시편 85:7-8)

하나님, 이란에 머물던 하마스 정치 지도자의 피살 배후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중동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미움과 분노로 갈등의 골이 깊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에 대립하는 아랍 국가들이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 공의를 선포하시고 악한 배후의 사탄을 파하여 주소서. 중동의 박해받는 성도들과 열방의 교회가 부르짖어 주님의 화평을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분쟁이 있는 곳곳에 보이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옵소서.

▲ 국제이주기구, 인신매매 피해자 35%는 어린이

전 세계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면서 10명 중 3-4명꼴에 이른다고 연합뉴스가 지난달 30일 국제이주기구(IOM)를 인용해 전했다. IOM이 113개국에서 156개 국적의 인신매매 피해자 6만 9,000여 명의 사례를 1차 데이터로 삼아 분석했으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아동의 비율은 3배가량 증가하면서 전체 피해자 가운데 3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35% 가운데 소녀가 18%, 소년이 17%"라며 "아프리카와 남미,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가운데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60-73%에 이른다"고 전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에스겔 34:11,13-14)

하나님, 부모의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자라야 할 아이들을 성매매와 강제노동의 도구로 생각하여 인신매매하게 하는 사탄의 간계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너뜨려 주소서. 지금도 인신매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저들을 건져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잃어버렸던 자들이 가족과 주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와 수치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 나는 주를 경외하리라”

마두로 3선 발표에 주변국 ‘부정선거’ 일제히 의심

28일(현지시간)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서방 언론의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고 현역인 니콜라스 마두로(61) 대통령이 당선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증폭하고 있다.

특히 친(親)여당 성향의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CNE)가 실시간 개표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개표 참관을 원하는 시민 그룹을 차단한 채 6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화하면서 주변국에서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0시 10분께 마두로 대통령이 51.2%의 득표율(80% 개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방 언론의 출구 조사에서 민주야권의 에드문도 곤살레스(74)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분석기관 에디슨리서치의 출구조사에서 곤살레스 후보의 예상 득표율이 65%로 마두로 대통령(31%)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결과에 주변국들은 당장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선거 당국의 발표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소망이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도 “마두로 정권은 이번 선거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온전한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또 “칠레는 검증할 수 없는 결과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루는 사태 논의를 위해 주베네수엘라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

코스타리카 정부도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 발표는 사기로 의심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아메리카대륙의 민주 정부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지가 존중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승리를 낙관해온 미국과 주변국의 격한 반응과 달리 러시아와 쿠바 등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했다.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도 선거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베네수엘라와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처럼 갈리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도 부정선거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선거 결과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시편 5:5-7)

하나님,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의혹으로 혼란한 가운데 놓인 베네수엘라에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경제적 파탄을 맞은 절망적인 상황에 지도자에 대한 실망까지 더해진 베네수엘라 국민의 처참한 심령이 오히려 참된 복음을 찾는 갈망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선거 결과로 인한 분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풍성한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향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의 뜻이 온전히 서는 베네수엘라 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라오스 목회자, 괴한 총격에 사망…'기독교 활동' 중단 경고 받아와

라오스의 북서부 방하이 마을에서 한 목회자가 괴한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고 모닝스타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통캄 팔라반(Thongkham Philavanh·40) 목사는 자택에서 가축에게 사료를 주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의 총격을 받았으며,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도착하자마자 사망했다. 살해범들은 도주했다. 크무 부족 지도자인 라오복음교회(LEC)의 통캄 목사는 예수 영화를 상영하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목사들을 위한 훈련도 진행했다. 지역 기독교인들에 따르면, 통캄 목사는 당국의 면밀한 감시와 '기독교 활동'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수 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두 명의 10대 자녀들이 있다. 한편, 최근에 라오스 유엔본부 앞에서 1인 시위가 진행되었고 시위를 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가는 일이 있었다. 공산주의 국가답게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대처하여 종교기관에 모든 종교집회 및 청년 모임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렸다. 또한 라오스 거주 한인들이 출석하는 한인교회에도 주일 1회 본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다.

주님, 들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니엘 9:19, 새번역)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하나의 밀알로 이 땅에 뿌려진 목사님의 순교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유가족에게도 같은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위로하여 주십시오. 사회주의 국가요,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 주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이 도성과 백성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박해의 현장에서 복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 순간 기도가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 구원받은 자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 인도네시아 교회, 무슬림의 폭동으로 예배 중단

인도네시아의 탕에랑 텔룩 나가 구역의 지역 주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배 중단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이 24일 전했다. 한 주민은 폭도들이 교회 예배를 중단시킨 것은 무슬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예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교회측 관계자는 그동안 푸리 나가 인다 단지에 있던 교회 시설의 임대계약이 만료돼 텔룩 나가 구역에 있는 성도의 집에서 모임을 갖던 중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 주민들의 공격을 받곤 한다. 이는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슬람을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헌신적인 무슬림들에 의해 이 같은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한1서 5:4-5)

하나님, 하루 5번 이슬람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전역에 울려 퍼질 정도로 무슬림이 다수인 영향력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헛된 우상으로 영혼의 눈을 가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교회에 복음의 생명력을 더하셔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에게 살아있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 일어나 열방에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